

가슴 졸인 수천명 “만세... 나로호의 꿈 드디어 이뤘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2000여 관람객 태극기 흔들며 열광

10여년을 기다려온 우주를 향한 ‘고흥의 꿈’이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활짝 피어났다. 30일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는 고흥 군민과 각지에서 찾아온 국민 2000여명이 우주를 향해 첫걸음을 내민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켜봤다.

발사 후,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서도 육안으로 나로호의 비행 궤적이 보이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성공을 기원했다. 발사대와 동떨어져 있어 나로호의 모습은 반딧불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관람객들은 망원경과 카메라 등을 들고 숨죽이며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또 이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나로호 발사 장면이 중계되자 두 손 모아 발사 성공을 기원했다. 아이들은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거나 직접 만든 나로호 모형틀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나로호 성공 발사를 응원했다.

발사 10초를 남겨두자 관람객들은 함께 한목소리로 남을 를 외쳤고, 나로호가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자 관람객들도 함께 팔짝팔짝 뛰며 환호성을 질렀다.

관중에서 세 자녀와 찾아왔다는 오 선아(여·47)씨는 “힘든 일도 많았는데,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행복하다”면서 “한국의 첫 우주비행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더없이 뜻 깊다”고 말했다.

나로호 발사 순간을 볼 수 있는 봉남등대를 찾은 100여명의 관광객들도 환호하며 성공의 순간을 함께했다.

애초 잦은 발사 연기로 관광객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했지만 고흥에는 지난 29일 오후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로도와 고흥을 일대 숙박시설의 모두 예약됐고, 이날 밤 고흥을 24시간 편의점은 밀려드는 손님으로 거스름돈이 통나는 등 ‘우주 특수’도 톡톡히 누렸다.

관객들의 기쁨도 컸지만, 2차례 발사 실패와 3차 발사의 두 차례 연기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고흥 군민들의 감격은 더욱 남달랐다.

고흥군 풍양면 김근호(41)씨는 “계속 발사에 실패하니깐 괜히 고흥 사람들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다”면서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고흥이 한

국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로우주연구소에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이사를 해야 했던 봉래면 예내리 허반마을 이주민들의 감회도 남달랐다.

허반마을 5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 2002년부터 나로우주센터 공사가 시작되자 삶의 터전은 물론 산산까지 옮기며 나로호 발사 성공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당시 허반마을 이장이었던 김동민(78)씨는 “우주 과학 발전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산산까지 이전했다”며 “나로호 발사가 잇따라 연기되고 실패하자 조상님 뉘 면목이 없었다”고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털어냈다.

이날 고흥을 찾은 항우들도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고흥에서 펼쳐지는 우주쇼를 즐겼다. 재경고흥군항우회 정희(58) 회장은 “우리 고흥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면서 “이번 발사 성공은 타지에서 살고 있는 호남인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오광록·박정렬 기자 kroh@ /고흥=주지경기자 gjj@



30일 한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3차발사에 성공하자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발사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고흥=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기쁜 날”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기쁜 날입니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로켓) 나로호(KSLV-1)가 세 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30일 발사에 성공하자 전국민은 “우주산업 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며 환호했다.

국민들은 특히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100% 국산 기술로 제작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직장과 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TV를 지켜본 시민들은 나로호가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자 일제히 환호했다. 회사에서 TV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는 직장인 김혜선(여·28)씨는 “두 번의 실패 때문에 이번에도 잘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성공 장면을 보고 정말 기쁘다”며 “과박한 우리 인생에도 나로호 성공처럼 좋은 일이 있을 거란 희망이 든다”고 기뻐했다.

전국이 환호 도가니
직장·역·버스터미널... 발사 성공 기쁨 나눠

공무원 박모(여·43)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생중계를 보던 동료들이 거의 동시에 ‘성공’을 외치더라”면서 “발사에 든 비용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을 텐데 이번에 또 미뤄졌으면 화가 날 뻔했다”며 웃었다. 직장인 박정철(31)씨는 “두 번이나 발사조차 못해 조마조마했는데 시원하게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 땀만 흘려줬다”며 “어렵게 첫걸음을 뚫은 만큼 우주에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나로호 성공을 기뻐하는 박수갈채는 발사 성공 기원 행사를 위해 30여 명이 모인 국립 과학과학관에서도 울

려 퍼졌다. ‘나로호 화이팅’ 등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만들어 쓴 어린이와 부모들은 발사 중계영상이 나오자 숨을 죽이고 바라보다 발사 성공을 확인하는 순간 환호의 함성을 질렀다. 나로호 발사 순간에 무대에 꽃가루가 쏟아지고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야외에 마련된 실재 크기 모형 나로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1주년 사전예약을 하고 10살 아들과 이곳을 찾은 김은숙(여·38)씨는 “그동안 실패해서 솔직히 크게 기대를 안했다”며 “아들이 로켓을 좋아해 함께 왔는데 성공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들 정호영군은 “나로호가 발사되고 나서 1단 분리할 때가 가장 이슬 아슬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나로호’의 완벽한 성공 여부는 발사 후 11시간 37분 뒤인 31일 오전 3시 37분에 확인할 수 있다. 나로호와 첫 교신하게 될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내 대형 안테나(사진 위)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 반응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30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 성공과 관련,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운 ‘우주시대’를 열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한다”며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까지 수고한 모든 과학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 2010년 6월 10

李대통령 “새 우주시대 국민과 함께 축하” 여야 한목소리 성공환영... 적극 지원 약속

일 2차 발사에 연달아 실패하는 아픔을 느껴야 했지만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한 끝에 마침내 성공의 역사를 쓰게 됐다”며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박종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과학기술강국,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활짝 열어줬다”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로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분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우리나라 자체의 우주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고 우주과학발전이 국민의 삶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시·도지사 축하 성명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30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로켓)인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해 축하 성명서를 내고 자신의 노력을 다한 과학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을 비롯한 오천만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며 “148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姜시장 “오천만 국민에 꿈·희망 줬다” 朴지사 “우주항공 클러스터 집중 육성”

“나로호 발사에 참여한 과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환영 성명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발사 연기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전남도민과 고흥군민, 연구개발에 힘쓴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자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도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연구개발센터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낙후된 전남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lucky@kwangju.co.kr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문의할 곳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n@hanmail.net
-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 보육교사 자격 및 진로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4주간의 연장실습(10월경)이 가능한 분야여 함)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Canon

EOS 60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